

종교평화 선언 논란 뚜껑을 열었더니...

초안 발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사부대중 토론회가 9월 1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열렸다. 각 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회자들은 초안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 진리관, 전법과 전교의 원칙, 아쇼카 왕의 인용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열린 진리관
초안 발표 후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화쟁위는 종교평화선언 초안에서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연기법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불교와 정적 운영위원 범은 스님은 "가장 큰 문제는 종교는 절대적 신념의 세계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고 연기법을 무

아사리 명법 스님은 "유가의 가족주의와 불교의 초세속주의는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유가의 효사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불교적으로 재형성시켰다"고 밝혔다. 최고의 깨달음인 '아녹다라삼마삼보리'조차 고정된 것이기를 거부하는 불교적 정신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우리의 삶을 선한 쪽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남을 위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면 그것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힌두교이든 이슬람이든 다르마이자 진리로서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한자리서 공방 3대 쟁점에 토론 집중

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에서 불교적 관점이 빈약하고 기독교의 '바이라 선언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기독교식 열린 진리관은 제 종교의 하나됨으로 귀결되나 불교에서 '신앙적으로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열린 진리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대해 조계종 교수

전법과 전교의 원칙
화쟁위는 종교평화선언문 초안에서 "전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아직 기초가 약한 불자들이 열려한다면 포교 원력을 키우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전법이 개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재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종교평화선언 초안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학중 대표는 "이교도의 심장부까지 들어가 목숨을 건 전도를 행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쇼카왕의 인용

종교평화선언 초안은 아쇼카 왕의 활동을 인용하면서 종교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산 스님은 "아쇼카 왕의 인용은 내용상 이해를 돕는데 자연스럽겠으나 하나 전면에 부제로 내 세우는 일은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선언을 준비한 측의 고심은 인정하나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종교평화선언을 하면서

특정 종교와 연관이 깊은 인물을 제시하는 것은 선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웃 종교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명법 스님은 아쇼카왕이 전정광이었던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전정광이던 군주가 불교에 감화돼 전쟁을 그만두고 종교간 평화를 실천했다. 불교 정신을 실천한 탁월한 군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주의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종하고 불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선양됐다는 의미다.

박기범 · 이은정 기자

“자책감 느껴 서울시장 출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청춘토크파티 참석

“현재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도 등록금, 취업문제로 고민 많을 것 같다.”

9월 22일 서울 시립대에서 ‘청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청춘토크파티에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했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젊은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원유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느냐고 말했다. 내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공적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는 자책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시장 자리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탐내는 자리이지만, 솔직히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독배고 행복이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원순 후보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즐겁게 일하라고 응원해 줬다”라며 “신나고 즐겁지 않은 일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일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이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청년 대학생 대표를 명예 부시장으로 임명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대중공익에 불교와 종단 미래 맡긴다

5일 수도권 활성화 논의 이어 12일 수익사업 진단 공청회

수도권 불교 활성화와 종단 수익사업을 진단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조계종 수도권불교활성화 TF팀은 10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도권 불교의 문제와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범안 스님이 ‘수도권 불교의 현실과 과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이 ‘한국사회에서 수도권 지역 종교현황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회에는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 포교원 포교국장 남전 스님, 이석심 교육원 교육차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에서 불교 신도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기획한 수도권불교활성화 TF팀은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불교사회연구소, 수도권 각 사찰 실무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 직할교구의 위상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가져왔다. 또한 TF팀은 토론회에서 제

기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구체적 적용 사례에 대한 효용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총무원 재무부는 12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재정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는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범안 스님이 ‘종단재정사업의 원칙과 방향’ 장영욱 재무부 팀장이 ‘종단 재정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는다. 토론회에는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윤남진 NGO리서치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재무부와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5월 31일 종단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정책토론회에서는 종단 수익사업의 필요성과 원칙의 명확한 정립, 현재 수익사업의 진단,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됐다.

이번 공청회는 종단 실무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당시 정책토론회의 내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무부와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합의와 사부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한국 불교 완성위해 북한 사찰 연구 필요

민추분·봉은사, 교류 활성화 토론회 전문가들 자유로운 연구 강조

역사학자와 문화재 연구자들이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북한 불교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계종 봉은사는 9월 22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북한 전통 사찰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구 동국대 역사학과 교수와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황 교수는 북한 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를 전년대 한국불교사의 전개 속에서 제시했다.

북한 지역 사찰 중 영명사는 광개토태왕

2년 아도화상이 칙령을 받들어 창건했는데 동명성왕 구제궁에 유적지가 있어 영명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릉사는 단군릉이 부각 될 때까지 동명성왕릉을 수호하는 능침사찰로서 북한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시했다.

고려태조 왕건은 919년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뒤 10대 사찰을 창건한다. 이후 개경과 주위에 25소의 사찰이 창건됐다. 이 중 범왕사는 팔관회를 주관했던 사찰이다. 왕릉사는 태조의 진전사원 봉은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연등회가 열렸던 국가사찰이다.

황 교수는 “고대이래 중요사찰이 북한 지역에서도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남북 불교의 통합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선일 동북아미술연구소장은 북한의 불교 미술을 통해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



황인구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 발제 모습.

했다.

목조불상의 경우 남쪽 지방에 거주하던 스님들이 북쪽 지방 사찰의 불상을 제작한 작품이 많다. 이는 남쪽 지역에 불상을 만들기 좋은 목재들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최선일 소장은 “남북 불교 문화재를 자유롭게 조사한다면 한국불교미술사 정립과 남북 동질성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교수불자協, 대학생 위해 30개 대학에 지원금 전달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교수불자들이 나선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이하 교불련)는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금 1500만원을 활동지원금으로 9월 27일 전달했다.

기금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보시로 조성됐다. 교불련은 이 기금을 30개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에게 전달했다.

교불련 최용춘 회장은 “교수불자들은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늘 화두로 삼아 정진해 왔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2009년부터 정진한 결과 30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교불련은 이번 첫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2012년부터는 봄학기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종단 프리미엄 생수

물은 감로수 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은감로수” 출시 및 전국 농협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 입점 안내

- “물은감로수”는 9월 5일 전국 2,400개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에 입점합니다!
- “물은감로수”는 기존 명칭과 디자인에서 새로운 이름과 신선한 이미지로 변신하였습니다!
- “물은감로수”는 농협 물류센터 이용으로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물은감로수”는 판매수익금 전액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조성합니다!

※ 사찰과 신도들은 종단 프리미엄 생수의 판매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물은감로수”를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는 변함없이 판매되고 있으니 사찰에서는 종단 및 진로와 석수에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및 문의사항 : 총무원 재무부 사업팀 02)2011-1760~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재무부